

한국 가족의 교육열과 대학입시 : 가족적 대책 수립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College Entrance Exam, Educational Aspirations,
and Functional strategies of the Korean Family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김경신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명자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박혜인
경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유영주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유은희
동덕여자대학교 가정학과 부교수 윤종희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이미숙

Dept.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 Kim, Kyeong Shin

Dept.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 : Kim, Myung Cha

Dept.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 Associate Prof. : Park, Hye In

Dept.of Home Management, Kyunghee Univ. Prof. : You, Young Ju

Dept.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 Lecturer : Yoo, Eun Hee

Dept.of Home Economics, Dongduk Women's Univ. Associate Prof. : Yoon, Chong Hee

Dept.of Home Education, Pai Chai Univ. Assistant Prof. : Lee, Mee Sook

〈 목 차 〉

- | | |
|-----------------|---------------------------|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IV. 연구 결과 |
| II. 선행 연구의 고찰 | V. 결론 : 가족적 대책수립을 위한 실천방안 |
| III. 연구 문제 및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current problems of family in adolescents'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nd to propose the practical alternatives

* 본 논문은 1993년도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about effective overcoming strategies.

To study these objectives, two kinds of sample and questionnaire were selected and the data were obtained through 360 parent-child pairs and 802 college, preparatory institute students living in Seoul, Taejon, Taegu and Kwangju.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Educational achievements were affected by adolescents' personal traits as achievement need, self-regulation, emotional stability, and self-concept, but parents' over-aspirations were negative agent for stress coping.

2. Parent-adolescent intimate and self-regulated relationships were positive factors for achievement and educational self-concept. Also adolescents' educational aspirations were more significantly affected by parents' emotional supports.

3. Family stress were mediated by parent-child conflict, so satisfied parent-child relationships can protect serious stressors as examination problems. Especially father-related factors were importantly revealed. In conclusion, adolescent, family, and society must develop coping methods individually and cooperatively through family life education, systematic policy, and educational reformation.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고등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열망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이 있어왔으나, 특히 해방이후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평등사회가 도래하면서 교육열은 궁극적으로 대학진학을 위한 경쟁열로 집약되고 있다.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일류대학졸업은 바로 계층의 상승이동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더우기 1969년부터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1974년부터의 고등학교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고등학교까지 올라온 학생들의 대다수가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어, 대학진학의 문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입학은 결사적인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있다.

1992년의 경우 대학진학지원자수는 재수생 326,861명을 포함하여 931,601명이었으나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입학자의 수는 407,921명, 탈락자수는 523,680명으로 입시경쟁율은 2.3대 1이었다. 4년제 대학만 보면 입학자수가 215,680명으로 경쟁율은 4.3대 1에 이른다(교육부, 1992). 이처럼 대학입학정원이 국민의 교육열을 절대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므로 경쟁을자체가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대학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제반 학교 교

육은 결국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교육으로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입시준비교육은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제도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제반 사회 병리적 증상들이 표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족이 자녀의 입시준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학입시와 이에 따르는 심리적, 사회적 부담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중대한 관심사이므로, 이들이 경험하는 개인 가족의 문제,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개개인의 경험수준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을 따름이며, 이들을 위한 사회나 교육제도의 체계적 지원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학문적 연구에 있어서도 입시제도자체나 변천에 대한 분석과, 수험생의 불안수준이나 스트레스분석에 대한 연구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부모 자녀등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 차원에서 가족생활과 관련시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학문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정학자들이, 한 가족내의 부, 모, 자녀등 여러 가족원으로 부터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여, 수험생가족이 경험하는

제반문제와 실태를 규명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의의 있는 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험생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조망하여 수험생 가족은 물론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인식전환의 계기를 부여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문화적 역사적 전통속에 자리잡고 있었던 교육열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오늘의 수험생 가족문제를 낳게한 근본적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한국인의 교육열과 수험생가족문제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같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오늘날 한국가족의 교육열의 실상과 그 근원이 되는 가족 및 사회의 가치와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 사회가 균형적 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셋째, 어떤 수험생가족은 다른 가족과 비교하여 대학입시에 따르는 제반 어려움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해나간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이들 가족이 지닌 대처자원과 사회적 지원망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입시에 수반하는 제반 어려움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과 가족을 준비시킴으로써 가족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지방대학교, 전문대학의 입학생, 그리고 재수생을 대상으로 각 집단별로 가족환경, 부모자녀관계,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제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가족환경조성과 자녀 교육방안 등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나, 생활교육 등 가족의 제반 심리적 구조적 특성이 개인의 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수립에 이바지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입시위주의 왜곡된 교육열을, 전인적 삶의 교육으로 승화시키는데 기여할 것

이며, 수험생 가족을 위한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차원에서 장단기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수험생 가족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분야 연구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한국가족의 교육열

교육열의 역사적 접근에 있어서 손인수(1980)는 한국인의 전통적 교육의식과 교육적 전통의 발굴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동식(1980)은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면과 아울러 부정적인 면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대 교육의 병폐도 과거의 병적인 전통의 소산이라고 밝히면서 오늘날 과외공부를 지나치게 하는 것도 과거의 병적인 전통의 계승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까지 이루어진 전통사회의 교육이나 이념에 대한 연구는, 제도사적 고찰이거나(조좌호 : 1958, 이병휴 : 1972, 1975, 1984, 이성무 : 1980, 허홍식 : 1981), 아니면 과거의 사상가들의 고전을 통한 훈고학적 해석과 인용에 치중하는(손인수 : 1980, 정순목 : 1970, 1983) 경향이였다. 이런 점에서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사회제도, 가치와의 관련성에서 실제적인 교육과 삶의 모습을 분석하는 측면은 결여되었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손인수, 1980). 한편 전통사회의 교육열을 여성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조혜정, 1982)가 있으며,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부정행위로 인한 '科獄'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홍렬, 1970)이 전통사회의 교육열의 부정적 측면을 밝혀주는 유일한 연구로 주목된다.

또한 근대 이후의 한국가족의 교육열은 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발전론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의 교육열은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의 자질 양성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Smelsers와 Lipset, 1966). 한편으로 교육열은 교육제도 및 사회구조 속에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을 만큼 가열화되는 경우 개인적 또는 사회적 병리현상

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한국가족의 교육열을 최근의 대학입시와 직결하여 검토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탐색적 연구로서 '대학입시와 가족'(한국사회학회 가족문화분과, 1992)을 들 수 있으며 수험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이 각기 경험하게 되는 입시준비과정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개인적 문제 또는 병리현상들이 지적되고 있다. 자녀의 교육성취 및 지위획득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 (Wilson과 Alejandro, 1976; Looker와 Pineo, 1983)을 기초로 교육열을 규명함에 있어 자녀 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하는 이른바 '가족의 교육열'이 고려되고 있다. 특히, 가족주의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가족(조혜정, 1985)에 있어 자녀의 교육은 자녀 자신과 부모의 공동적 관심사이며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는 과제가 되므로, 자녀 개인만이 아닌 '가족의 교육열'로서 분석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2. 수험생 가족의 특성과 스트레스 대응

수험생의 개체적 특성 중 지능과 성적과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0에서(행동과학연구소, 1977) .68정도까지(이상우, 1976) 다양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보고되었으며 Boulanger (1980)가 34편의 지능과 학업성취 관련연구의 분석 결과로 밝힌 상관계수는 .48이었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는 .18에서 .60(Max, Buck와 Brown, 1972)의 다양한 수준이나 국내외의 많은 연구가 일관성있게 이들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김정숙, 1983; 임선희, 1983).

학생의 성격특성과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연구대상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박문재, 1979; 윤경희, 1983; Benjamin, 1970), 일반적으로 책임감, 자율성, 경쟁심, 환경적응 능력, 자신감, 집중력 등의 인적 특성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서적인 불안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대다수의 국내 연구가 불안이 학습저해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으나(이수식, 1984; 임선희, 1983; 최선자, 1986) 모든 연구결

과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간의 상관관계는 지능에 따라(김현숙, 1980; 임준식, 1981) 또는 학습과제의 성격이나 난이도(Spielberger, 1966)에 따라 복합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학습습관과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보고된 국내외의 연구결과는 .20에서(Bloom, 1976) .93이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황정규, 1977) 학습습관이 학업성취를 예언해 주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인정되고 있다. 성취동기와 학업성취간 상관관계는 .16(Ricciuti, 1955)에서 .51(McClelland, 1961)의 수준으로 다양한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다. 미숙아(Kolb, 1965)로 부터 초·중·고교의 학생(Taba, 1955)등 대상을 달리한 연구에서도 성취동기는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집단의 특성과 자녀의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통제적 차원과 애정적 차원이 자녀의 인지능력 발달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어 왔으며(Steinberg 등, 1989; Hess와 McDavitt, 1984) 전생애적 발달심리에서는 애착과 자율성 발달이 청년기의 주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이나 사회적 적응과 관련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Kenny, 1987). 부모와 안정된 애착의 경험은 자녀에게 근원적인 신뢰감과 자신감을 제공해주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한다 (Ainsworth, 1979). 자율성이 발달한 사람은 독립적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자기규제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능력은 학업수행과 관련이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Grolnick와 Ryan, 1989).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 자녀 관계를 이루는 단일차원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두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자들은 자녀의 인지적 발달에 부모의 사회적 행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왔지만 부모 자녀관계를 이루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학업성취와 관련된 몇가지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중재변수로서 학문적 자아개념, 학업성취동기, 스트레스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학문적 자아개념과(김기정, 1984) 학업성취동기(Phillips, 1987; Grolnick와 Ryan, 1987)는 학업성취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과도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학업성취를 해아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전략이란, 성취과정에서 느낄수 있는 부정적 감정(distress)을 최소화하면서 성취수준을 최대화시키는 것인데 청년기 자녀의 애착과 자율성 발달은 디스트레스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armezy, 1983; Kobak와 Sceery, 198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정구, 1986; 김은혜, 1987).

이처럼 수험생 가족의 효율적인 적응 여부가 매우 중시되므로 특히 스트레스의 극복 여부가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청소년기의 학업 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Holmes와 Rahe(1967)는 개인의 적응과정에서 의의있는 변화를 요하는 생활사건 43개를 모아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박종원(1982), 이정순·조길자(1983), 이명희(1989) 등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생활사건을 통해 연구하였다. 또한 김을환(1986)은 고교생의 스트레스 배경에 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유발요인 중 어느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규명하였고 이정순(1988), 이도영(1990) 역시 고교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따른 대응 행동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김정희(1987)의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작용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 정도가 클수록 적극적 대처도 많이 하고 우울수준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노재숙(1991) 역시 고등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해결에 스트레스가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함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상당수의 연구결과들이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정신 및 신체적 질환의 발병이나, 경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학업과 관련되어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

므로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학업제도 및 교육열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는 자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연관되어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는 물론 부모자녀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며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청소년 자녀의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가족 전체의 스트레스 차원에서 분석해 봄이 필요하다. 전세경(1989)은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의 성적에 따라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이동원(한국사회학회, 1992)은 수험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67.8%, 어머니의 78.7%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처럼 과도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가족관계가 매우 중요한 완충적 매개변인임을 지적하고 있고(Rabkin, 1982; Jenkins, 1979) 가족원간의 갈등이나 친밀도 등이 스트레스완화에 밀접히 관련된다고 하였다(박종원, 1982; Larson 등, 1990; Rutter, 1979; Sandler와 Block, 1979). 또한 자기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 역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고(김경아·이정우, 1990; 노재숙, 1990; Jenkins, 1979; Hill, 1971) 이외에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력도 분석되어져 왔다(이도영, 1979; Hamilton과 Uarburton, 197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대처자원으로서의 개인 및 가족자원을 중시하여 변인을 구성하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1) 한국가족의 교육열: 역사적 고찰

① 과거 및 과거급제에 대한 사회적 의미부여와 그 성격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② 과거시험 변천에 대응한 가족과 여성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③ 전통사회의 교육열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가?

2) 한국가족의 교육열 : 가치 및 구조적 연구

①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교육열은 수험생 자녀와 부모 집단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② 가족의 교육열과 관련된 가치관은 수험생 자녀와 부모 집단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③ 수험생의 교육열에 관련되는 가치 및 가족구조적 특성은 무엇인가?

3) 수험생의 발달특성

① 수험생이 가진 개체적 특징(지능, 자아개념, 인성적 특성, 동기, 학습습관)이 입시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가?

② 수험생이 경험하는 가정환경(부모학력, 직업, 심리적 생활습관적 학습환경)은 입시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가?

4) 부모자녀관계와 수험생자녀의 학업성취

① 수험생자녀와 부모관계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② 부모자녀관계 유형과 학업성취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부모자녀관계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는 차이가 있는가?

③ 부모자녀관계의 하위 특성들은 학업성취도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부모자녀관계의 하위 특성들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자녀의 학문적 자아개념, 학업성취동기, 스트레스 등에 의해 중재될 수 있는가?

④ 부모 자녀 관계의 하위특성들과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지원, 결혼상태)은 각기 학업성취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5)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와 대처

① 부모와 수험생 자녀가 겪는 스트레스 인지의 내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디스트레스의 정도는 어떠한가?

②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 인지, 스트레

스 대처방식, 디스트레스는 각각 어떠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가?

③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가족 변인 즉 부모의 권위, 지배성, 결혼 만족도, 자녀의 또래관계, 자아정체감, 성취욕, 부모자녀간 일치도, 선호도, 친밀도, 갈등, 가족응집도 등이 각자의 스트레스인지, 스트레스 대처방식, 디스트레스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고3 수험생과 그 부모, 대학 신입생, 재수생 등을 대상으로 각 연구 목적에 따라 실증적 연구가 행해졌으며 제반 문헌고찰 및 통계자료가 병행하여 분석되었다.

교육열의 가족적 가치 및 구조적 배경연구, 입시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그 부모 3인을 한쌍으로 표집하여 자녀, 부, 모에게 해당하는 각각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 대전, 광주 지역을 임의 선정하였고,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은 강북과 강남에서 남고, 여고를 각각 1개교씩 4개교를 선정하였으며, 대전, 광주의 경우는 각각 남고, 여고 1개교씩 선정하여 총 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조사 인원으로는 450가족, 1,350명을 대상으로 배부하였고, 회수한 설문지 중 불충실한 자료를 제외한 360가족, 1,080명의 자료를 최종 통계처리하였다. 예비조사는 1993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50가족,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일부 수정한 설문지로 1993년 4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학업성취도와 수험생의 발달특성 연구는, 1992년도 수험생중 93년도에 서울과 지방에 소재한 전기대나 전문대에 합격한 1학년 학생과, 소재과악이 용이한 명문재수학원생을 대상으로 내신등급과 입학점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1993년 4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제반 척도에 대한 문항 판별력 검증을 통해 본조사를 위한 척도를 작성하였다.

본조사는 1993년 5월 25일부터 6월 17일 사이에 연구원이, 서울 소재 4개 대학, 2개의 전문대학, 1개의 재수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기재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수거하고, 지방 소재 3개 대학은 해당대학의 교수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900명의 학생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832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실기재 등 신뢰도가 떨어지는 질문지는 모두 제외시키고 802부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3. 조사도구

1) 한국가족의 교육열

먼저 가치관 척도에서 일반적인 인간성에 대한 척도는 Looker와 Pineo (1983)가 십대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획득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적용한 13개 항목의 인간적 특성에 대한 가치척도를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11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였고(Cronbach α : 도구적특성 .73, 덕목적특성 .66, 친사회적 특성 .40) 입시관련 가치관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진학에 관한 8개 가치항목으로서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Cronbach α : 수단적요인 .74, 인격발달적요인 .72). 교육열 척도는 교육기대 관련 문항들은 연구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행동적 측면의 교육열은 House와 Kahn (1985)의 사회적 지원척도를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한 부모의 지원행동을 측정하도록 13개 항목의 척도로 재구성한 것이다(Cronbach α : 자원지원 .60, 공부관련지원 .80, 정서적지원 .71). 또한 가족구조적 특성은 아버지의 직업과 가족의 월수입과 함께 가족내 경제권 및 자녀교육 책임권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수험생의 발달특성 및 학업성취

먼저 애착은 부모가 자녀의 상태,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감정, 스트레스 상황시 부모와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와 행동 등의 하위개념에 의해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type 5점 척도이며 Cronbach α = .899이었다. 자율성은 부모에 대한 의존적 욕구의 감소, 부모와의 분리

감각, 부모에 대한 탈이상화 (deidealization),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자기통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자기주장, 내적통제 등의 하위개념에 의해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Cronbach α = .700이었다.

학업성취는 대학교 입학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자기보고 방식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만족도는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대한 만족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문적 자아개념은 자신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인생과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 등에 의해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지원은 학교 교육비를 제외하고 월평균 소요된 과외비용의 정도를 자기보고 방식에 의해 응답하게 하였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 모 각자의 교육년수에 의해 측정하였다.

학업성취동기는 학교생활이나 공부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가를 측정하였고 Cronbach α = .670이었으며 스트레스는 진학이나 학업과 관련하여 경험했던 스트레스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Cronbach α = .670이었다.

3)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와 대처

대처자원으로서의 가족자원을 중시하여 변인을 구성하되 주로 학업에 관련되거나 부모자녀 관계에 관련하여 척도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소영역별 척도는 총 18가지로서, 15가지의 개인 및 가족관련변인과 스트레스인지, 스트레스대처, 디스트레스 척도로 구성된다. 스트레스 인지 항목은 대학입시 준비에 관련한 스트레스의 자기 평가 영역을 9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디스트레스 척도 역시 학업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정신, 신체적 증상에 기준하여 자녀 20개, 부모 22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척도는 McCrae(1984) 등이 제시한 문제해결적 대처와 정서적 대처를 세분화한 28개 소영역을 중심으로 학업에 관련하여 서술되었으며 4개 영역은 2문항씩으로 구성하여 총 32개 문항을 설정하였다. 각 척도는 5점 Likert type 이며 신뢰도는 스트레스 인지, 대처, 디스트레스 순으로 Cronbach's α = .70, .77, .90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한국가족의 교육열 : 역사적 고찰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가치지향을 과거제를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중앙집권적 관료제', '문충상의 전통', '출세주의', '가족주의'의 네 가지로 집약되었다. 첫째, '중앙집권적 관료제'는 과거시험을 정착시킨 고려·조선조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일제시대와 미군정기를 통하여도 지속, 강화되어 온 역사적 소산이었다. 오늘날 균형을 잃고 비대해진 서울의 과밀화와 해소되기 어려운 서울·지방과의 현저한 격차에, 중앙집권적 구조의 폐해가 반영되고 있다.

둘째, '文 충상의 전통'은 상대적으로 '武를 차별'하였고, '技術을 천시'하는 사농공상의 개념으로 표현되었다(이홍렬, 1967). 그리하여 世宗代에 우수했던 과학기술이 단절되어 한국 전통의 자연과학을 상실하였고(박성래, 1982), 또 '장인(匠人)정신이 약화'되어 전통의 계승이 어려워진 것도 文충상 일반도인 풍토의 소산이었다. 한편 과거제 자체는 지식·학력의 평가였지만 학자들은, 학문에 진력할 수 있을 만큼 확보한 경제적 기반 위에 학문에 전념하여, 이른바 사림파와 같은 학풍을 조성하였다(이수건, 1979). 그리하여 文을 숭상하는 사회적인 지지 아래 '교육열'이 배태되었고, 그 교육열은 도덕정치 구현과 인간 품성을 고양시키는 학문 발전으로 연결되었다(정순목, 1983).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일제식민지와 미군정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였다. 수행을 겸한 '학문'보다는 '학벌' 또는 '학력'이 우선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왜곡되었고 학벌이라는 것은 출세를 위한 도구로 변화하였다.

세째, 조선조의 신분사회는 과거급제라는 관문만 통과하면 개인과 집안의 입신양명과 부귀공명이 뒤따랐다. 뿐만 아니라 과거급제자를 통하여 권위적인 관료사회체제를 유지한만큼, 어사화(御賜花)를 내리고 삼현육각(三玄六角)을 울리며 솟대(華柱)를 세우는 등 사회적 위세를 과시하게 하여 科擧급제에 대한 권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그 결과 과거급제에 대한 열망을 내면화시킨 것이 바로 '출세주의'이

다.

네째, 남성가족원은 집안을 대표하여 科擧라는 決戰의 장에 나아갔다. 부계·모계 양가 조상들의 이름과 관직을 걸고 나아가고, 이기고 돌아오면 조상은 물론 형제의 이름까지 나란히 방(榜)이 붙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가족주의'를 강화시켜 나갔다. 특히 과거제를 통하여 재가(再嫁)금지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여성의 정절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킨 까닭에 여성이 자신의 삶을 구현하는 길은 자식을 통하는 길밖에 없는 구조로 정착되어 갔다. 결국 자신의 사회적 출구를 따로 허용받지 못한 여성들은, 남편과 아들의 입신양명이 곧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목표이므로 과거준비를 뒷바라지하는 '가족주의'과업에 매진한다. 사대부 양반의 부인일수록 더욱 높은 '교육열의 전담자'로서 그 일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양반층과는 달리 평민 여성들은, 자녀의 출세를 자기 삶의 목표 내지 행복의 원천으로 삼기 이전에 일상의 반복되는 농사와 길쌈이 더 바쁘고 고달팠다. 巫歌의 사설에서나, 아니면 다음 생을 비는 덜구소리에서 장원급제를 꿈꿀 뿐 권력과 거리가 먼 현실을 직시하였고(조동일, 1993) 그런만큼 '가족주의'에 덜 매몰되었다.

그후 신분제도가 폐기되었다고 하여 그 유제(遺制)라든지 잔존의식이 약한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 시점이 신분폐지로 인한 교육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게 된 때이다. 동시에 이것은 이제까지 신분차별의 제도 속에서 소외되고 좌절을 겪어온 하층신분들도 교육을 매개로 경쟁하게 되는 이른바 '교육열의 대중화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신분제를 폐지한 뒤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고는 하였으나 종래와 같은 연고성과 폐쇄성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2. 한국가족의 교육열 : 가치 및 구조적 연구

1) 수험생과 부모의 교육열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육기대는 예상대로 수험생자녀와 부모의 대부분(자녀 집단, 98%; 모집단, 98%; 부집단, 77%)이 자녀의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대상 중에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경우도 비교적 높게(자녀 32%, 모 45%) 나타나고 있다. 다만 부집단은 기대수준이 다소 낮아, 전체의 14%만이 자녀의 대학원 이상 학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집단과 자녀집단에서의 교육기대를 토대로 앞으로 교육경쟁과 가족의 교육열은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정점에 이른다는 현재의 양상을 벗어나 대학원 입시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수험생과 부모집단이 자신들의 교육열과 우리사회 전반의 교육열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 살펴보면, 수험생 자신을 위한 부모의 교육열에 대해 63%가 적절하다고 보고하며 26%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이라고 보고한다. 반면에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수험생의 경쟁이나 부모들의 교육열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필요 이상의 과잉경쟁이며 과잉교육열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의 교육열을 전반적으로 과열화현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전체 사회에 비해 자신들의 경쟁이나 교육열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자녀의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자녀를 위한 부모의 구체적인 지원행동을 살펴 보면, 모집단과 부집단 모두 '수험생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 '격려의 말' 등과 같은 정서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해주며, 다음으로 '아침에 깨워주기', '집안의 공부분위기 조성' 등과 같은 공부관련지원을, 그 다음으로 '과외나 학원비수강' '학교방문' 등과 같은 자원적 지원을 가장 덜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이 도구적인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수험생가족의 바람직한 단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 지원행동에 대한 부모의 집단간 차이를 보면 모집단(평균점수 34.3)이 부집단(평균점수 32.0)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ired $t=5.34$, $p<.001$).

2) 교육열에 관련되는 수험생과 부모의 가치관

11개 인간적 특성에 대한 세 집단의 가치관을 비교해보면, 자녀집단은 자신 또래의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 '책임감이 있다', '정직하다', '남의 입장에 사려깊다'는 특성 (평균 3.5 이상)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부모의 학벌', '공부를 잘한다', '집안의 경제적

여유' 등을 가장 덜 중요한 특성 (평균 2.5 이하)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응답점수에서 차이는 있으나 부모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전반에서 인간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성으로 공부를 잘하거나 부모나 집안의 배경을 지적하므로써 우리 사회의 인간에 대한 가치는 다분히 도구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관련 가치관에서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또는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평균 3.2 이상), '가족의 체면 유지'나 '가문의 발전'과 같은 전통적 가족주의적 가치는 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5 이하).

3) 수험생의 교육열에 관련되는 가치 및 구조적 특성

수험생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자녀 본인의 교육열이라는 현실을 수용하여 수험생 자녀의 교육열망에 관련되는 가치 및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녀의 교육열망은 교육기대척도와 현재 학급에서의 성적수준을 합산한 것이다. 가족구조적 특성으로서 거주지, 부의 교육수준 및 직업, 모의 교육수준 및 직업, 가족내 경제권 및 자녀교육 책임권을 선정하여 이들 구조적 특성이 자녀의 교육열망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 검토한 결과 거주지와 부의 교육수준만이 유의한 구조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의한 구조 변수만이 가치관과 부모의 지원을 포함하는 최종 분석모델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의 교육열망은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집단이 대졸학력을 가진 집단에 비해 자녀의 교육열망이 낮게 나타났다($b=-.238$, $p<.05$).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입시관련 가치관은 자녀의 교육열망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간관에 따라 열망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원면에서는 자원적 지원과 공부관련지원은 자녀의 교육열망에 유의

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정서적 지원은 자녀 교육열망에 대해 정적 영향력을 미쳐($b=.062, p<.01$)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열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교육열망은 외부적인 조건보다는 자녀자신의 근본적인 가치관에 따라 달라 지며, 부모의 지원면에서도 공부나 성적과 직결되는 도구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수험생의 발달특성

1) 집단별 학업성취 수준

수험생의 학업성취수준은 대학입학점수와 내신등급을 고려하여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집단은 내신등급과 입학점수로 측정된 학업성취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에 전개되는 수험생의 개체적 특성은 이러한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네 집단으로 분류한 특성이다. 집단간의 차와 그에 따르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같은 내신등급 평균 1.38등급, 입학점수 평균 300-320점 사이에 있는 학생들로 1993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기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집단이다. 올은 내신등급 평균 4.35등급, 입학점수 평균 240점 정도를 얻은 학생들로 1993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기 또는 후기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집단이다. 병집단은 내신등급 4.11등급으로 을집단과 차이가 없고 전문대 입학점수 평균 240-260점 사이에 있는 학생들로서 1993년도 대학입시에서 전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이다. 다시 말해서 을집단과 내신등급과 입학점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다만 재학중인 학교가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이라는 차이점이다. 정집단은 내신등급 평균 1.93, 1993년도 대입에서 획득한 점수가 280에 가까운 학생들로서 현재 명문 재수 학원에서 재수중인 학생들 집단이다. 대입에서 실패했다고는 하나 내신등급이나 학력고사 점수 상으로 갑집단보다는 낮으나, 을, 병집단보다는 높다.

2) 학업성취 수준별 집단특성

수험생의 지적 특성은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입학시험 성적 순위나 지능 순위가 같았으며, 학문적 자아개념도 지방, 도시 소재의 4년제 대학 합격생은 2년제 대학과 재수생 집단과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수험생의 인성적 특성 역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은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집중력은 성적하위 합격생 집단이, 자율성은 재수생 집단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의 정서적 상태는 성적상으로 상위인 합격생 집단과 재수생 집단이, 성적상으로 하위인 을, 병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험 불안은 성적상으로 최상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의미있게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습관은 성적 상위 집단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량에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재수생 집단은 고3시절에 과외 시간량, 학원 시간량이 타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으며, 더불어 총공부 시간량도 제일 많았다. 동기 수준은 성적 하위 합격생 집단이 희망 직업 수준만 제외하고 학업 성취 동기, 기대 직업, 희망 교육수준, 기대 교육수준에서 일관성있게 제일 높았다. 성적 하위 합격생 집단인 올은 희망 교육수준과 기대 교육수준은 갑 집단과 차이가 없었으나 기대 직종이 전문대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재수생 집단은 희망 직업은 네 집단중 가장 높았고, 실제로 기대하는 직종은 갑집단과 유사하였으나 희망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전문대 집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의 가치관 역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정도가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재수생 집단만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효율적인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성적 하위 합격생 집단과 전문대 합격생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뒷받침은 네 집단 모두 중요한 편이라고 느끼고 있고 학원이나 과외 교습은 네 집

〈표 1〉 집단별 내신등급 및 입학점수의 평균에 대한 검증

	갑 (N=361)	을 (N=390)	병 (N=85)	정 (N=57)	F	Scheffé 추후검증
내신등급 a	1.387 A	4.358 BC	4.116 BC	1.938 B	.000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 은 차이가 없 음.
입학점수 b	8.487 ACD	5.003 B	5.342 BD	6.793 BCD	.000	

a : 내신등급

b : 9=320점 이상, 8=300점 이상, 7=280점 이상, 6=260점 이상, 5=240점 이상

단 모두 중요하지 않은 편으로 느끼고 있었으나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가정 환경적 특성은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집단간의 차이가 있었다. 성적하위 합격생 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하여 부모 학력, 수입,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입시와 관련하여 보여준 행동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은 재수생 집단이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대입과 관련된 학업성취는 개인의 능력이나 인성, 정서적 상태, 학습습관, 동기 수준, 가치관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이루어 내는 성취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 인간을 성숙한 인적 자원으로 양육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며 고3 시절에만 국한된 과정이 아니라고 본다.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길러 주고, 인성적 특성을 갖추도록 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와 자율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갖추도록 해주며, 동기수준은 높게 갖고, 독립적인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가정에서나 부모의 지원 행동은 이러한 개체적 자질을 배양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4. 부모자녀관계와 수험생 자녀의 학업성취

1) 수험생자녀와 부모관계의 특성

수험생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율성 점수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각각 3.54와 3.44로서 수험생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애착과 자율성 발

달이 비교적 높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각 변수별로 평균을 구해본 결과 애착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는 어머니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감정은 특히 높았지만 (평균 4.14-4.26) 실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때 어머니와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성향과 (평균 2.98) 자녀의 학습능력이나 자녀의 실체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평균 3.05). 자율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 (평균 2.70-3.11), 분리감각 (평균 2.61)은 낮았으나 자신의 방과후의 시간사용, 친구만나기 등의 사소한 부문에서는 수험생 자신의 의사결정(평균 3.91-4.10)이 높았다.

2) 부모자녀관계 유형과 학업성취도

부모자녀관계 유형을 애착, 자율성 각각의 ME를 기준으로하여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높게 발달한 집단, 애착은 높으나 자율성은 낮은 집단, 자율성은 높으나 애착은 낮은 집단,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낮게 발달한 집단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4가지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학업성취만족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F=3.69, P<.10$). 즉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높게 발달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학업성취 자체에는 IQ같은 선천적인 학습능력이 보다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각 개인이 이미 갖고있는 학습능력 위에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데는 부모자녀간의 심리적특성이 중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겠다.

3) 부모자녀관계의 하위특성들과 학업성취

학업성취동기, 스트레스, 학문적 자아개념을 중재 변수로 포함시켜서 학업성취와 학업성취 만족도에 각기 회귀분석한 결과 학문적 자아개념($\beta = .122$)은 학업성취에, 학업성취동기($\beta = .168$)는 학업성취 만족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스트레스는 학업성취 ($\beta = -.217$)와 학업성취 만족도($\beta = -.122$)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학문적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동기, 스트레스에 대해 애착과 자율성을 회귀분석시킨 결과 애착은 학문적 자아개념($\beta = .215$)과 학업성취 동기($\beta = .246$)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자율성은 스트레스($\beta = -.109$)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학문적 자아개념($\beta = .246$)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그림 1〉 참조). 즉, 애착은 학업성취동기와 학문적 자아개념을 증진시켜주고 이는 다시 학업성취와 학업성취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게 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안정된 애착발달은 자녀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함으로써(Ainsworth, 1979) 학업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대학입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율성은 학문적 자아개념을 증진시키고 대학입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정도를 감소시켜 줌으로써 학업성취와 학업성취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율성 발달을 지원해주는 것이 독립적인 성취와 자아규제를 필요로 하는 학업수행 환경에(Grolnick와 Ryan, 1989) 자녀를 보다 더 잘 준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업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부모자녀관계의 하위특성들과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

애착, 자율성, 부, 모의 교육년수, 결혼상태, 경제적 지원을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만족도에 각기 회귀분석시킨 결과 학업성취 자체에는 어머니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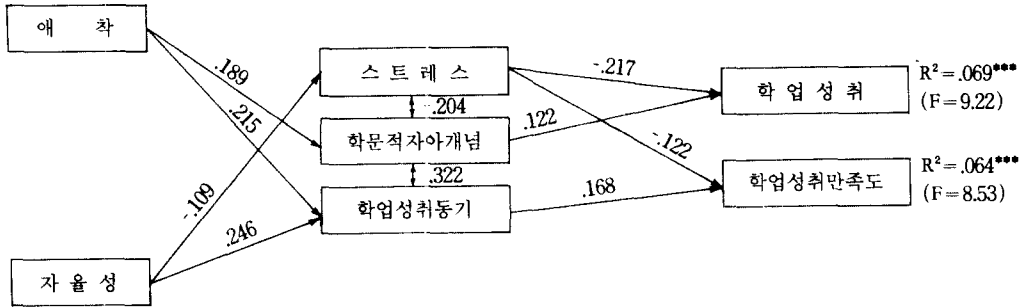
수준($b = .717$, sig $t = .000$)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학업성취만족도에는 애착($b = .109$, sig $t = .032$)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험생 자녀의 대학입시 대응을 지원해주는 데는 물리적 환경 보다는 사회심리적 환경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서 대학입시라는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더 잘 견딜 수 있으며, 학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회 심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더 요구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제공은 부모가 자녀와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녀에게 독립심과 책임감, 자기규제 능력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 자녀 관계 유형에서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부모 자녀 관계 유형은 발달심리나 가족치료이론에서 건강하고 적응력이 높은 가족관계의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학입시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지 자녀의 학업성적 만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자녀를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서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장기적으로 접근해나가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5.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와 대처

1)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부모와 수험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학업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자녀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3.569) 다음은 모(3.296), 부(3.1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모의 스트레스 점수와 부의 점수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수험생 자녀를 둔 부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서는 자녀 2.676, 모 2.613, 부 2.593으로 별 차이가 없어, 스트레스 인지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자녀는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높음에도 이것을 적절한 대처 방법에 의



〈그림 1〉 학업성취와 학업성취만족도에 대한 애착, 자율성, 학문적자아개념, 학업성취동기, 스트레스의 영향

해 감소시키지 못함에 따라 불안, 우울, 피곤, 압박감 등 여러가지 정신, 신체적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대처 방식 내용에 있어서는 부모자녀 모두 문제해결적 대처를 많이 하고 있으나, 모든 인내형, 부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녀는 위축, 자기책망, 방어, 회피 등의 정서적 대처 유형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 자녀의 대처방식이 성숙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는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통하여 정신, 신체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있지만 수험생 자신은 스트레스 인지 수준에 비하여 적절한 대처 방식을 수립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상태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와 수험생자녀의 스트레스 각 영역별 상관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가 상호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부부간의 스트레스는 비교적 상관이 높지만($r=.545$) 부모자녀간에는 상관이 높지 않은 결과(모자녀 $r=.231$, 부자녀 $r=.220$)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즉 수험생 자녀는 스트레스가 높아도 부모는 스트레스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단가, 또는 자녀는 스트레스가 낮는데 부모는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 대처간의 상관도는 모자녀간보다 부자녀간에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별 스트레스 영역간의 상관도를 보면, 부모의 경우는 스트레스 인지 및 디스트레스보다는 스트레스 대처와 디스트레스

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스트레스 인지가 디스트레스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3) 관련변인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족에 관련된 변인들은 다양하게 스트레스의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인구사회학적 변인별 차이에서는 자녀의 지원 대학 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F=11.20, p<.001$) 성적이 낮은 수험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더욱 절실하며, 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의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어($F=5.26, p<.001$)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의 개입이 적극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소득, 중고졸의 학력을 가진 부, 직업적 지위가 낮은 부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F=2.90, 3.47, 3.99, p<.01$) 자녀의 대학 진학에 대한 대리 성취 욕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보면 가족간의 응집성은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주며 특히 부의 대처 행동이 영향을 받고 있어($\beta=-.16, p<.01$) 스트레스 극복을 위하여 가족간의 단결과 화합이 더욱 필요함을 나타내주며, 자아정체감, 학업 성취욕, 결혼만족도 등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므로($\beta=-.22, -.20, -.19, p<.01$) 스트레스 극복에는 자녀나 부모 개인의 태도나 만족도 등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부모 변인 중에서는 부모 특히 부와의 친밀성($\beta=-.15, p<.01$), 일치성($\beta=-.13, p<.05$) 등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트레스는

감소되고 있어 부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또한 부모가 가정에서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되지만 부모의 지배성은 스트레스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22, p<.001$), 민주적인 가정의 분위기가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을 줌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가족의 스트레스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간 갈등이 심화되어 있을 때 스트레스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자녀, 모, 부 순으로 $\beta=.32, .38, .50, p<.001$: 디스트레스). 그러므로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는 대학입시라는 스트레스원이 주어지기 이전에 부모자녀관계의 건전한 유형을 확립하여 갈등을 극소화하는 노력을 하여야만이 대학입시라는 스트레스원이 주는 자극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모두 자신이 느끼는 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실제 가족원 각자의 생각이나 행동보다는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부모자녀간에는 동일한 가족변수에 대해서도 각각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있어 그 내용이 일치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지각 내용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부모와 자녀간의 지각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며, 부모는 자신의 행위가 자녀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보다 주목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녀를 지도 하는 것이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V. 결론: 가족적 대책 수립을 위한 실천방안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험생의 개인적 특성, 즉 성취욕, 자율감, 정서적 안정성, 자아개념 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고 부모의 과잉교육열, 특히 경제적 지원 등은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 부모의 물질적 지원보다 심리적 지원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

다.

둘째,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높을수록, 자율적인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나 학문적 자아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 정서적으로 밀접하고 성숙된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수험생 자녀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

셋째, 수험생 자녀를 둔 가족의 스트레스가 원만히 극복되기 위해서는 역할 모델로서 부모, 특히 아버지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는 것이 필요하며 스트레스 가중 요인이 되는 부모자녀간의 갈등도 극복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에 관련된 가치관에서 부모들이 자녀에 비해 이중적 가치관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교육열은 과잉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경우는 적절하다고 지각하여 자기 자녀만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합리화하는 가족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수험생 가족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의 대책적 실천방안으로서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 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험생 개인의 측면에서:

1) 자신의 발달적 특성을 올바르게 알고 시험이라는 제도를 자신을 탐색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되, 지나친 과욕은 금물이며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학습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여야 한다.

2) 수험생 자신이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원만한 인간관계 하에서 잘못된 정보에 동요되지 않고 삶의 목적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험생 가족, 특히 부모의 측면에서:

1) 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지나친 교육열은 오히려 자녀의 역기능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부모는 확고한 교육관 하에서 자녀를 지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올바른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부모교육을 통하여 인간과 가정, 또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삶의 철학'이 교육되어야 하고 인간발달의 기초이론 교육을 통해 자녀 이해의 기회를 증가시켜야 한다.

2) 이러한 교육 기회를 통하여 청년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형성을 위한 자녀지도 방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율성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즉 허용과 관심, 애착과 독립이 병행하는 지도방법이 요구된다.

3) 수험생 가족은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환경이 되도록 가족원들이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원이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며 함께 대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건강한 가족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건전가정 모델이 제시되어야 하고 건강가족 육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세계, 사회·국가적 측면에서 :

1)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지나친 교육열, 과열 경쟁, 그릇된 가치의식 전환을 위해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타당한 기초지식, 정확한 정보가 밀받침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관련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2) 올바른 인간관, 교육관에 대한 철학이 확립되어야 하고 그러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인간본질, 교육의 본질, 삶의 본질에 대한 기초이론 연구와 보급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인간관, 교육관에 의거한 사회정의가 확립되어 입시부정 등의 사회 부도덕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지 않아야 한다.

4) 올바른 교육제도와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하나 개인의 능력, 적성 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적합한 직업과 직종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생활방식이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학력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차별대우 등이 사회에 만연될 때 입시제도에 따른 개인의 희생은 계속될 것이므로 개인, 가족, 사회가 일체가 되어 이러한 제도적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일대 교육혁명이 단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강정구(1986), 교육성취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교육부(1992), 고등교육기관 진학추세 전망 분석(1991-2010).
- 3) 김경아·이정우(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생활상의 stress 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01-117.
- 4)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김은혜(1987), 가정의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의 학년별 학업성취.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을환(1986), 고교생의 스트레스 실태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정숙(1983), 학업적 자아개념과 학업동기의 학업성취 예언에 관한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화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김현숙(1980), 불안수준의 변화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에 관한 실험 연구.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노재숙(1990),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박문재(1979), 성격요인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박성래(1982), 한국과학사. 한국방송사업단.
- 13) 박종원(1982), 청소년 정신장애 환자의 생활사건에 관한 일연구. 신경정신의학 21(4), 587-594.
- 14) 손인수(1980), 한국인의 전통적 교육의식과 현대교육의 제문제. 전통적 가치관과 새가치관의 정립.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 15) 윤경희(1983), 성격 특성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이도영(1990), 고등학교학생들의 스트레스수준

- 과 그 대화반응에 관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이동식(1980), 전통적 가정윤리와 현대가정의 제 문제. 전통적 가치관과 새가치관의 정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8) 이명희(198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장애에 관한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이병휴(1972), 다산 정약용의 과거제개혁론. 동양문화 13.
- 20) 이병휴(1975), 여말선초 관학의 실태와 과거교육. 동양문화연구 2.
- 21) 이병휴(1984), 조선전기 기호사립과 연구. 일조각.
- 22) 이상우(1976), 학업 성적의 예언과 I.Q 및 인성간의 상관적 접근. 학생 지도 연구 5, 공주사대부설 학생지도 연구소, 12, 23-30.
- 23) 이성무(1980), 조선초기 양반 연구. 일조각.
- 24) 이수건(1979), 영남사립과의 형성.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 25) 이수식(1984), 불안과 학업 성취. 부산산업대학교 논문집 제5집, 359-381.
- 26) 이정숙·조길자(1983),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의 스트레스 사건의 비교. 중앙의학 45, 57-62.
- 27) 이정순(1988),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따른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이홍렬(1970), 文科設行과 疑獄事件. 白山學報 8.
- 29) 임선희(1983), 자아개념 및 불안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임준식(1981), 불안 수준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전세경(1989),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정순목(1970),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민족문화연구소.
- 33) 정순목(1983), 조선조 시대의 교육사상과 사회적 기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교육과 사회 6집. 민중사.
- 34) 조동일(1993), 우리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 35) 조좌호(1958), 여대의 과거제도. 역사학보 10.
- 36) 조혜정(1982), 전통적 경험세계와 여성.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총서 82-6.
- 37) 조혜정(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제 17집, 79-90.
- 38) 최선자(1986), 수업불안 및 기대 수준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9) 한국사회학회 가족문화연구회편(1992), 대학입시와 가족.
- 40) 허홍식(1976), 한국중세사회사 자료집. 아세아문화사.
- 41) 황정규(1977), 적성검사 요인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2) Ainsworth, M. D. S.(1979), Attachment : Retrospect and prospect, In *The placement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C. M. Parkes & Hinde(eds.), New York : Basic Books.
- 43) Benjamin, J.A.(1970), A study of the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the academic success of high school student,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 44) Bloom, B. S.(1976), Time and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29, 682-688.
- 45) Boulanger, D. F. (1980), Ability and science learning : A qualitative synthesis. *Journal of Reasearch in Science Teaching*, 18, 113-121.
- 46) Boss, P. G.(1988), *Family stress management*. Sage Publications.
- 47) Garmezy, N(1983), Stressors of childhood, In N. Garmezy and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pp.43-84, NewYork : McGrawhill.
- 48) Grolnick, W. S. and R. M. Ryan(1987),

- Autonomy in children's learning, an experimental and individual difference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 No.5, 890-898.
- 49) Grolnick, W. S.(1989), Parental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1, No.2, 143-154.
- 50) Hamilton, V. & Uarburton, D. M.(1989), *Human stress and cognition*. New York : John Wiley Co.
- 51) Hess, R. D. and T. M. McDevitt(1984), Some cognitive consequences of maternal intervention techniques :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55, 2017-2030.
- 52) Hill, R.(1971), *Families under stress*. Westport, Conn. : Greenwood Press.
- 53) Holmes, T. H., & Rahe, R. H.(1967), The Social Aduj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54) House, J. S. and R. L. Kahn (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Social support and health*, edited by S. Cohen and S. L. Syme, pp.83-108. Orlando : Academic Press.
- 55) Jenkins, C. D.(1979), Psychosocial modifiers of response to stress. In J. E. Barrett(ed.), *Stress and mental disorder*. New York : Raven Press.
- 56) Kenny, M. E.(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No. 1, 17-29.
- 57) Koback, R. and A. Sceery(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58) Kolb, D. A.(1965), Achievement motivation training for underachieving boy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783-792.
- 59) Larson, R. W., Raffaelli, M., Richards, M. H., Ham, M., and Jewell, L.(1990), Ecology of depression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 A profile of daily states and activities. *J. of Abnormal Psychology* 99, 92-102.
- 60) Looker, E. E. and P. C. Pineo(1983), Social psychological variables and their relevance to the status attainment of teenager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6), 1195-219.
- 61) McCrae, R. R.(1984),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oping responses : Loss, threat, and challenge. *JPSP*, 46(4), 919-928.
- 62)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 D. Van Nostrand, 80.
- 63) Max, Buck, & Brown, R.(197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the presence and absence of scholastic under achieve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 319-324.
- 64) Phillips, D. A.(1987), Socialization of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among highly competent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308-1320.
- 65) Rabkin, J. G.(1982), Stress and psychiatric disorders. In L. Goldberger & S.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 The Free Press.
- 66) Ricciuti, H. N.(1955), *The prediction of academic grade at the high school level*. Princeton: Educational Testing Services.
- 67) Rutter, M.(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3, 49-74. London : University Press of England.
- 68) Sandler, I. N. & Block, M.(1979), Life stress and maladaptation of children. *American J. of Community Psychology* 7, 425-440.
- 69) Smelser, N. J. and S. M. Lipset(1966), *Social structure and mobility in economic development*. Aldine.
- 70) Spielberger, C. D.(1966), Theory and research on

- anxiety. In C. D. Spielberger(ed.), *Anxiety and behavior*. N.Y. : Academic Press.
- 71) Steinberg, L., J. D. Elmen, N. S. Mounts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soci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1424-1436.
- 72) Taba, H.(1955), *School culture: Studies of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Washington, D. C. :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73) Wilson, K. I. and P. Alejandro(1976), The educational attainment process : Results from a national sampl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2), 343-61.